



## 에듀원 콘텐츠 저작권 안내

(주)에듀원에서 제공하는 보충자료입니다. 아래의 콘텐츠 저작권 고지를 반드시 인지하시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실린 모든 편집 구성 및 형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주)에듀원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전송,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웹하드, P2P 등 (주)에듀원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온·오프라인에서의 공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1:1문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They never say to you, "What does his voice sound like? What games does he love best? Does he collect butterflies?"
- 13 Instead, they ask, "How old is he? How many brothers does he have? How much money does his father make?"
- 14 They all love numbers and think they have learned things only from numbers.
- 15 If you were to say to grown-ups, "I saw a beautiful house made of colorful stone, with flowers in the windows and birds on the wall," they would not be able to get any idea of that house at all.
- 16 You would have to say to them, "I saw a house that cost 100,000 francs." Then they would cry, "Oh, what a house!"
- 17 That's what happened when I told grown-ups about the little prince after returning from the desert.
- 18 I said to them, "I met a little prince in the middle of the Sahara Desert. He was friendly, laughed a lot, and was looking for a sheep. If anybody wants a sheep, that shows that he or she exists."
- 19 But they showed no interest and treated me like a child. They are like that. One must not hold it against them. Children should always show great patience toward grown-up people.
- 20 I should have said to them, "The planet he came from is Planet B-612." Then they would have understood and believed that I had met the little prince.

## 교과서 핵심문장 Review

p.75

- A 01 It was six years ago that I met the little prince in the Sahara Desert.
- 02 The voice was from a little prince standing in front of my broken airplane.
- 03 It did not take long to learn that he came from a small planet and was looking for a sheep!
- 04 Fortunately, however, the Turkish astronomer was allowed a chance to give his presentation all over again in 1920.
- 05 I was so happy to see him, and we talked a while.
- B 01 I felt so tired and alone that you can imagine my surprise at sunrise, when I was woken up by a little voice.
- 02 I should have said to them, "The planet he came from is Planet B-612."
- 03 Then they would have understood and believed that I had met the little prince.
- 04 That's what happened when I told grown-ups about the little prince after returning from the desert.
- 05 This planet has only once been seen through a telescope.

## 최종점검 모의고사

### Lesson 04

pp.78~81

- 01 instead of 02 ⑤ 03 ③ 04 ⑤  
05 ⑤

- 06 As global villagers, we're supposed to do something to help our global neighbors.
- 07 [예시답안] He will teach children and campaign for temple preservation.
- 08 ④ 09 ④
- 10 arrived at the library, her friend had already gone home
- 11 ③, ④
- 12 ④, He (had) washed his hands before he had dinner.
- 13 ② 14 ① 15 ① 16 ①
- 17 My friends thought I had gone off the deep end.
- 18 Finding that she could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under her own power, she burst into tears.
- 19 ④ 20 ⑤

- 01 instead of ~: ~ 대신에
- 02 '몇몇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거나, 무언가를 퍼뜨리거나 제공하다'는 distribute(나누어 주다, 분배하다)의 영영풀이이다.
- 03 peak: ㉠ 절정, 최고조; (산의) 봉우리, 정상  
• 선수들은 모두 컨디션이 최상이다.  
• 산꼭대기가 구름으로 덮여 있다.
- 04 It means ~.는 '그것은 ~라는 뜻이야.'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용어 등을 설명하거나 정의할 때 쓰는 표현이다.
- 05 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틀림없이 좋을 거야.'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조동사 should를 '~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의 조동사 must로 바꿔야 한다.
- 06 '~be supposed to + 동사원형 ...'은 '~는 ...해야 해., ~는 ...하기로 되어 있어.'라는 의미로, 도덕적 의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 07 준하의 마지막 말로 보아,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원 보존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할 것이다.
- 08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그것을 지불하지 못했던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므로 빈칸에는 'had + 과거분사'의 형태가 적절하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나는 그것을 지불할 수 없었다.
- 09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현재분사 Taking이 적절하다.  
만약 이 기차를 탄다면, 너는 그곳에 제때 도착할 것이다.
- 10 Maria의 친구가 집에 간 것은 Maria가 도서관에 도착한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므로 부사절의 동사는 과거 시제로 쓰고, 주절의 동사는 'had + 과거분사'의 과거완료로 쓴다. 부사 already는 과거완료와 함께 쓰일 경우 had와 과거분사 사이에 쓴다.
- 11 빈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또는 접속사 Because나 As 등이 이끄는 부사절이 들어가야 한다. 부사절은 「접속사 + 주어 + 동사」의 여순으로 쓰고, 분사구문은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하고,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 후 부사절의 동사를 「동사원형 + -ing」 형태의 현재분사로 바꿔서 만든다.
- 12 그가 손을 씻은 것은 그가 저녁을 먹은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현재완료인 has washed를 (had) washed로 고쳐야 한다.  
㉠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유령을 횡단하는 여행을 했다.  
㉡ 내 남동생은 음악을 들으면서 사과를 먹었다.  
㉢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그녀는 여행 중에 산 업서 몇 장을 내게 보여 주었다.
- 13 분사구문은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하고,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 후 부사절의 동사를 「동사원형 + -ing」 형태의 현재



분사로 바꿔서 만든다. 이때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 14 주어진 문장은 '우리는 지난날에 그를 만났고, 그는 우리에게 그의 삶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라는 의미이므로 Don Schoendorfer 박사에 대한 언급을 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인 ①에 오는 것이 흐름상 적절하다.
- 15 각각 선행사 a woman, people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빈칸 뒤에 동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이 적절하다.
- 16 그녀가 사고로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것은 Don Schoendorfer 박사가 그녀를 보았던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므로 과거완료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작하면 She had lost the use of her leg in an accident.가 되므로 빈칸 (A)에 들어갈 말은 lost이다.
- 17 주절의 동사 thought 뒤에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된 형태로, 친구들이 생각한 것보다 내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것이 더 먼저 일어난 것이므로 목적어절의 동사는 「had + 과거분사」의 형태로 쓴다.  
go off the deep end: 극단으로 치닫다, 자제력을 잃다
- 18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되어야 하므로 Found를 현재분사인 Finding으로 고쳐야 한다.
- 19 ㉠ give out ~: ~을 나누어 주다  
㉡ slow down: (속도·진행률) 늦추다
- 20 Don Schoendorfer 박사는 돈 때문에 Free Wheelchair Mission을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⑤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첫 백 대의 휠체어는 손으로 만들어졌다.  
② 인도에 사는 16세의 소녀는 평생을 작은 방에서 살았다.  
③ Free Wheelchair Mission은 다른 단체와 함께 일해 왔다.  
④ Free Wheelchair Mission은 거의 20년간 휠체어를 나누어 줬 왔다.

#### 최종점검 모의고사

#### Lesson 05

pp.82~85

- 01 sooner or later    02 ③    03 (s)wing    04 ③  
05 ④    06 ②    07 ④  
08 when to begin our final exam    09 ②    10 ④  
11 many → more    12 ③, ⑤    13 ④    14 ⑤  
15 how you should test    16 ③    17 ⑤    18 ④  
19 Wouldn't it be fun to find all of them and become an all-around great player?  
20 ③

- 01 sooner or later: 조만간  
02 wave: ㉠ (빛, 소리 등의) 파동; 파도 ㉡ (손 등을) 흔들다  
• 소리는 공기 중에서 파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기 위해 내 손을 흔들 것이다.  
03 '고정된 위치로부터 쉽게 한 방향으로 움직인 다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다'는 swing(휘두르다)의 영영풀이이다.  
04 It isn't clear to me ~는 '나는 ~을 잘 모르겠어.'라는 의미로, 무언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It isn't clear to me 뒤에 오는 간접의 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쓰므로 what he means로 고쳐야 한다.  
05 소녀의 마지막 말에서 '나는 그것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해.'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는 방법에 관한 내용인 ④ '그들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가 적절하다.  
06 try + to부정사: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07 Hit the pocket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세호의 말로 보아 ④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유진은 스트라이크를 하나 더 쳤다.  
② 세호는 어떻게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지 궁금하다.  
③ 유진은 세호에게 포켓을 치려고 노력해 보라고 조언한다.  
⑤ 'Hit the pocket'은 중앙에 놓인 볼링 핀에서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을 치는 것을 의미한다.  
08 '언제 ~할지'라는 의미의 「when + to부정사」가 동사 tell의 직접목적어가 되도록 배열한다.  
09 '~할수록, 더 ...하다'라는 의미는 「the + 비교급 + 주어 + 동사, the + 비교급 + 주어 + 동사」로 쓰므로 빈칸에는 clever의 비교급인 cleverer를 이용한 the cleverer가 적절하다.  
그는 배울수록, 더 영리해질 것이다.  
10 동사 decide의 목적어로 '언제 ~할지'라는 의미의 「when + to부정사」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Daniel은 언제 그 책을 살지 결정할 수 없었다.  
11 '~할수록, 더 ...하다'는 「the + 비교급 + 주어 + 동사, the + 비교급 + 주어 + 동사」로 쓰므로, many를 비교급인 more로 고쳐야 한다.  
12 빈칸에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무엇을 ~할지'라는 의미의 「what + to부정사」 또는 「what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이 적절하다.  
13 ㉠ '~할수록, 더 ...하다'라는 의미는 「the + 비교급 + 주어 + 동사, the + 비교급 + 주어 + 동사」로 쓰므로 빈칸에는 부사 often의 비교급인 more often을 이용한 The more often이 적절하다.  
㉡ 동사 know의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어디에서 ~할지'라는 의미의 「where + to부정사」가 되도록 빈칸에는 to find가 적절하다.  
• 네가 사탕을 자주 먹을수록, 더 쉽게 충치가 생길 수 있다.  
• Jane은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다.  
14 ⑤ 이 지점에 맞았을 때 약간 다른 소리를 알아차릴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similar를 different로 고쳐야 한다.  
15 「의문사 + to부정사」는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16 '혼자서, 다른 사람 없이'라는 의미의 by oneself와 가주어 it과 진주어 to부정사구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작하면 You can do the test by yourself, although it's easier and more fun to do it with a friend.가 되므로, 빈칸 (A)에 들어갈 말은 ③ to가 적절하다.  
17 ⑤ 누가 처음 '최적 타점'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① 최적 타점을 스스로 찾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야구 방망이, 망치, 친구 한 명  
② 최적 타점을 찾기 위한 실험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 야구 방망이를 느슨하게 잡아 지면을 향해 매달리도록 한다.  
③ '최적 타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 야구, 테니스, 골프와 같은 스포츠  
④ 야구 선수가 최적 타점에 공을 치면 어떻게 느끼는가? → 가장 느낌이 좋고 좀 더 강한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  
18 ④ 동사 enjoy의 목적어인 동명사 hitting과 등위접속사 and로 병렬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동명사인 seeing으로 고쳐야 한다.  
19 가주어 it와 진주어인 to부정사구를 이용하여 배열한다.  
20 ③ 야구 방망이가 에너지를 덜 잃을수록 공은 에너지를 더 얻게 되어 더 멀리 날아가게 된다고 했다.

#### 최종점검 모의고사

#### Lesson 06

pp.86~89

- 01 be away    02 ③    03 (e)xpert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③    09 ③    10 ③  
11 asked, what I wanted, the, day    12 ②    13 ⑤

14 ②      15 separation      16 ⑤      17 ⑤  
18 ①      19 ③

20 What first caught his attention were the shampoo bottles in his bathroom.

- 01 be away: 떨어져 있다  
02 process: 과정; 처리하다  
• 그 꽃병은 이동하는 과정에 깨졌다.  
• 은행이 수표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03 '특정한 주제나 활동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expert(전문가)의 영영품어이다.  
04 빈칸 앞에서 '내가 도와줄까? 내가 너를 위해 네 가방을 들어줄게.'라고 소년  
가 말했으므로 빈칸에는 That's so nice of you.(너 정말 친절하구나.)가 가  
장 적절하다.  
① 무슨 일이니?  
② 그거 참 안됐구나.  
④ 나는 지금 축구를 할 수 없어.  
⑤ 너의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해 봐.  
05 마지막에 음악을 추가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단계가 너무 많다는 호  
름이므로 chances(기회들)을 steps(단계들)로 고쳐야 한다.  
06 know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므로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으로 고쳐야 한다.  
07 식판에 있는 세 개의 선이 받고 싶은 음식의 양을 보여 준다는 흐름이므로  
amount(양)가 적절하다.  
08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인 「지각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어  
(동사원형[현재분사])」 구문으로 빈칸에는 play[playing]가 적절하다.  
너는 Sam이 축구하는 것을 봤니?  
09 평서문을 간접화법으로 전환할 때, 전달동사가 과거일 때 인용한 말의 시제  
가 과거이면 과거완료로 바꾸고,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인칭대명사 I를 he  
로, you를 her로 바꾼다.  
그는 그녀에게 "나는 너에게 편지를 보냈어."라고 말했다.  
→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10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인 「지각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어  
(동사원형[현재분사])」 구문을 이용하여 바르게 영작하면 I felt my heart  
beating violently.이므로 네 번째로 오는 것은 heart이다.  
11 의문문을 간접화법으로 전환할 때 의문사가 있는 경우 「ask (+ 목적어) + 의  
문사 + 주어 + 동사」로 쓰고, 전달동사가 과거시제일 때 인용한 말의 시제가  
현재이면 과거로 바꾼다. 부사 tomorrow는 the next day로 바꾸고, 전달  
자의 입장에 맞게 인칭대명사 you를 I로 바꾼다.  
그는 나에게 "너는 내일 무엇을 하고 싶니?"라고 말했다.  
→ 그는 내가 다음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에게 물었다.  
12 ㉠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인 「지각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  
어(과거분사)」 구문이므로 washed가 적절하다.  
㉡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인 「지각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  
어(동사원형[현재분사])」 구문이므로 yell[yelling]이 적절하다.  
• 나는 어제 그 접시가 설거지되는 것을 봤다.  
• 그는 그의 여동생이 한 시간 전에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  
13 평서문을 간접화법으로 전환할 때, 전달동사가 과거일 때 인용한 말의 시제  
가 현재이면 과거로 바꾸고,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인칭대명사 I를 he로 바  
꾼다. 부사 today는 that day로 바꾼다.  
Jack은 나에게 "나는 오늘 낚시를 하러 갈 수 있어."라고 말했다.  
14 그녀가 혼자 남겨질 때마다 매우 속상하고 우울해졌다는 흐름이므로 left를  
수동태(be동사 + 과거분사)인 was left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15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을 분리하는 행동, 또는 분리된 상태'는  
separation(분리)의 영영품어이다.  
16 Brooke의 친구들이 Kayla의 분리 불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다.  
① Brooke의 개 이름은 무엇인가? → Kayla  
② Kayla는 혼자 있을 때 어땠는가? → 매우 속상하고 우울해졌다.  
③ Brooke은 그녀의 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가? → 그녀의 개와 멀  
어져 있는 동안에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④ Brooke은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친구들과 비디  
오 채팅을 하고 있었다.  
17 put forward ~: (안건·의견을) 내다[제기하다] (= suggest)  
18 「형용사 + enough to + 동사원형」 구문을 이용하여 바르게 영작하면 She  
was fortunate enough to work with a team of designers이므로 (A)에  
들어갈 말은 to이다.  
19 cut down on ~: ~을 줄이다  
20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므로 That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어로  
쓰이는 명사절을 이끄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고쳐야  
한다.

#### 최종점검 모의고사

#### Lesson 07

pp.90~93

- 01 a little bit      02 ②      03 ①      04 ②  
05 ②      06 ④      07 remember to      08 ⑤  
09 ①      10 so spicy that Tony couldn't      11 ④  
12 ①, ⑤  
13 If I had some money, I would buy a new laptop computer.  
14 ④      15 ⑤      16 Tree-ear      17 ③  
18 had, unbroken vase, could take      19 ③      20 ②

- 01 a little bit: 조금, 약간  
02 '손을 이용해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접시 등'은 pot(도자기 그릇)의 영영  
품어이다.  
① 통나무      ③ 화병, 꽃병  
④ 손수레      ⑤ 직업, 업  
03 age: 시대; 나이  
• 우리는 고도의 과학 기술 시대에 살고 있다.  
• 그는 나이에 비해 키가 컸다.  
② 공예      ③ 사금파리, 파편  
④ 계획표      ⑤ 문자; 성격; 특징  
04 이번 주 금요일이 등록 마지막 날이라고 상기시켜주는 소년의 말에 대한 대  
답이므로 ②의 '알았어. 고마워.'가 가장 적절하다.  
① 아, 미안해.  
③ 알겠어. 내일 보자.  
④ 등록하는 것을 잊지 마.  
⑤ 물론이지. 그때까지 거기로 갈게.  
05 주어진 문장은 '나는 그것을 도자기 수업에서 만들었어.'라는 의미로 '잘했  
네!'라는 대답 바로 앞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6 세호의 대답이 That's wonderful.(잘됐다.)인 것으로 보아 유진이가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have no time for ~(~할 시간  
이 없다)를 make time for ~(~을 위해 시간을 내다)로 고쳐야 한다.  
07 Don't forget to ~.는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어떤 내  
용을 상기시킬 때 쓰며, Remember to ~(~하는 것을 기억해.)로 바꿔 쓸 수  
있다.  
08 형용사[부사] + enough + to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한[하게]



오렌지 주스는 지금 마실 만큼 충분히 차갑다.

- 09 ‘(만약) ~라면 ...할 텐데.’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는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 ...」으로 쓰므로 had가 적절하다.

내가 카메라가 있다면 그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텐데.

- 10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can't[couldn't]: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1 ④는 미래에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순 조건문이므로 are가 적절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정법 과거로 were가 적절하다.

- ① 내가 너라면 나는 집에 일찍 갈 텐데.  
② 내가 부유하다면 나는 큰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③ 그가 더 건강하다면 그는 군대에 갈 수 있을 텐데.  
④ 네가 배가 고프다면 우리는 지금 저녁을 먹을 수 있다.  
⑤ 오늘 날씨가 좋다면 나는 너와 함께 축구를 할 텐데.

- 12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can't[couldn't]: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 too + 형용사[부사] + to부정사)

- 13 ‘(만약) ~라면 ...할 텐데.’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는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 ...」으로 쓰므로 have를 had로, will을 would로 쓴다.

- 14 목이가 도공 민 영감이 도자기 그릇과 화병 만드는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는 흐름이므로 copy(복사하다)를 make(만들다)로 고쳐야 한다.

- 15 가정법 과거를 이용해 영작하면 If you were my son, I would teach you 이므로 (A)에 들어갈 말은 would이다.

- 16 ⑥가 속한 문장은 ‘하지만 그 장인으로부터의 배움 없이 그가 어떻게 도공이 될 수 있던 말인가?’라는 의미로 he는 도공이 되고 싶어 하는 Tree-ear(목이)를 가리킨다.

- 17 ㉔ ‘완전히 박살 난 것을 발견했다’는 의미이므로 부사 completely(완전히)가 적절하다.

⑥ ‘퍼지다, 번지다’라는 의미의 spread의 과거형은 spread이다.

- 18 ‘(만약) ~라면 ...할 텐데.’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는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 ...」으로 쓰므로 have를 had로 고치고 could를 쓴다.

- 19 ㉔ 비교급 more를 강조하는 부사로 even이 적절하다.

⑥ ‘...만큼 ~한’의 의미는 「as + 형용사[부사] + as」로 나타내므로 as가 적절하다.

㉔ ‘목이는 너무 놀라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라는 흐름이므로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can't[couldn't]」 구문의 so가 적절하다.

- 20 ‘너 자신의 도공 물레 없이 어떻게 네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흐름이므로 with(~으로, ~을 가지고)를 without(~ 없이)으로 고쳐야 한다.